



을왕산 IFUS HILL 주민의견 청취 “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”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3월쯤 을왕산 IFUS HILL 복합영상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, 이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주민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-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전 절차인 주민 의견청취 열람·공고를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용유동 주민자치센터 등 3곳에서 시행한 결과 총 243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.
- 주민 의견서에 따르면 주민 100%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. 주요 의견으로는 △인천의 랜드마크로 개발되기를 희망하며 정체된 영종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, △영상산업이 발전하면 젊은 인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영종도 정착에 유리, △을왕산이 폐허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제는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기를 원함, △20여년간 기다려 왔으며 이번해야 말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등이었다.

- 이와 더불어,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시민연합도 지난해 12월8일부터 최근까지 을왕산 IFUS HILL 사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행, 현재 518명의 지역주민 서명부를 확보해 인천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.
- 인천경제청은 오는 3월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주민 모두가 찬성한 의견서와 지역주민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.
- 을왕산 IFUS HILL 개발 사업은 중구 을왕동 산 77-4번지 일대 80만7,733㎡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영상산업단지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.
- 이에 앞서 인천경제청은 이 사업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활히 하고 공항경제권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함께 하기로 했다.
- 인천경제청, 인천국제공항공사, 사업시행예정자인 아이퍼스힐(주) 등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협약 체결 후 공동 사업시행예정자 구조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.
- 강영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계획과장은 “영상콘텐츠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으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”며 “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착착 진행, 을왕산 IFUS HILL 개발 사업이 공항 경제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